

‘추억 소환’ 이벤트 데이, 성적도 재미도 흥런~

KIA, 삼성전 올드 유니폼 이벤트 레이디스데이·러브투게더 등 다양한 유니폼, 색다른 재미 선사
윌리엄스 감독 “매일매일 흥미진진”



“매일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다. 재미있다.”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에게 2020년은 배우고 새로움의 해다.

윌리엄스 감독은 KIA의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KBO에 입성했다. 타이거즈 첫 외국인 감독이라는 타이틀도 타이틀이지만 빅리거로서의 화려한 이력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KBO리그에서는 ‘초보 감독’인 그는 낯선 리그의 야구는 물론 역사와 문화도 배우는 중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특별 제작한 케이스에 와인을 담아 각 구단 감독에게 선물하며 새 리그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KBO리그를 경험하고 적응하고 있다.

‘88고속도로 씨리즈’도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흥미로운 배우의 장이었다.

KIA는 25·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추억을 소환했다. 두 팀 모두 올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만났다.

KIA는 빨간 상의 검정 하의의 ‘검빨 유니폼’을 입고, 삼성은 홈 유니폼 차림으로 챔피언스필드에서 격돌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88고속도로 씨리즈’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삼성이 8번 우승했고, KIA가 11번 우승했다. 오랫동안 전통의 라이벌로 알고 있다”며 “매일 배우고 있다”고 웃음을 보였다.

다양한 이벤트 유니폼을 입는 것도 새 리그에서의 즐거움 중 하나다.

윌리엄스 감독은 “(검빨 유니폼이) 멋있고 재미있다. 광주 유니폼, 레이디스데이 유니폼 등 다양한 유니폼을 입는 게 즐겁다”고 언급했다.

KIA는 올 시즌 다양한 유니폼을 선보이면서 팬들은 물론 선수들에게도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다.



KIA 나지완(오른쪽)이 역대 53번째 개인통산 2000루타 기록 달성 시상 후 윌리엄스 감독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 5월 29일 LG전에서 람사르데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렀고, 지난 6월 20·2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올드유니폼을 착용했다.

또 키움과 상대한 7월 11일과 13일에는 각각 러브투게더 데이, 레이디스데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다. 앞선 18일에는 코로나 19 극복을 기원하고 광주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 유니폼’ 차림으로 두산전을 치렀다.

이벤트 유니폼 데이의 단골손님은 브룩스다. 브룩스는 람사르데이, 러브투게더데이 유니폼에 이어 25일에는 올드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랐다. KIA는 브룩스의 등판에 맞춰 유니폼을 추가 주문했다.

앞선 러브투게더데이에 브룩스는 6회 이후 가능한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이벤트 유니폼의 경우 여벌이 없는 만큼 많이 많은 브룩스는 심판진에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옷을 빌려 입었다.

그리고 다시 브룩스가 이벤트 데이날 선발로 나

서게 되자 KIA는 유니폼을 추가로 준비했다.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전 감독이 시구자로 나서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이날 역전 결승타를 날리며 2018년 4월 22일 이후 825일 만의 3위를 이끈 최형우는 “삼성과의 88고속도로 씨리즈를 맞이해 올드유니폼을 입고 선동열 감독님의 시구를 보았다. 이런 영광스러운 경기에 뛰게 되어 좋았고 감독님 오랜만에 뵈게 되어 옛 생각도 나고 설레는 마음에 바지도 건어 올리고 시합을 뛰었다”며 “팀 내 최고참으로 후배들에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좋은 분위기를 시즌 끝날 때까지 이어가자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KIA와 삼성은 26일에는 랜선 팬사인회도 진행했다. 대구상원고 선후배인 삼성 최재홍과 KIA 전상현이 사인회에 참석해 화상채팅 앱을 통해 팬들을 만났다. 두 선수가 사인한 공은 팬들의 집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선동열 “검빨 유니폼, 추억 밀려오네”

덕아웃 T 특독

▲많은 추억이 떠오르는 유니폼 =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전 KIA 감독이 25일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섰다. 선 전 감독은 25·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KIA와 삼성의 ‘88고속도로 씨리즈’ 시구자로 광주를 찾았다.

경기 전 KIA 구단으로부터 감사패와 기념 액자를 받은 선 전 감독은 타이거즈 후배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오랜만에 인사를 나눴다. 이어 역시 감독으로 인연을 맺은 삼성 덕아웃으로 향해 허삼영 감독 등 선수들을 만났다. 그리고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구도 했다.

아쉽게 원바운드로 공이 빗나갔지만 선 전 감독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선 전 감독은 “오랜만에 이곳 챔피언스 필드에 왔다. 많은 추억이 떠오르는 올드 유니폼을 입고 시구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비록 관중석이 팬 여러분은 안 계셨지만, 중계방송으로 함께 해주셨을 거라 생각한다. 팬들과 함께 저도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도를 높이면서 = KIA 김선빈이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김선빈은 선수단에 합류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김선빈은 지난 6일 왼쪽 대퇴 이두근 염좌로 시즌 두 번째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활을 끝낸 김선빈은 26일 기술 훈련을 시작하면서 복귀 카운트 다음에 들어갔다. 윌리엄스 감독은 김선빈에 대해 “기술훈련을 어겼고 밖에서 훈련 핑고하고 타격 케이지에서 훈련을 했다”며 “몸상태는 좋다. 며칠 간 강도를 높여려고 한다. 주루 플레이, 베이스 러닝 등 다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고향이라서 = 광주 동성고 출신인 삼성 이원석은 올 시즌 대표적인 ‘KIA 킬러’다. 25일 경기까지 KIA전 10경기에서 나와 31타수 12안타, 타율 0.387로 9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안타 중 3개는 홈런이었다. 5월 10일 양현종을 상대로 시즌 마수



지난 25일 KIA-삼성전 시구 나선 선동열

걸이 홈런을 기록했고 지난 15·16일 대결에서는 두 경기 연속 홈런도 기록했다.

가능과 양현종을 상대로 뽑아낸 홈런. 고향에서도 강했다. 광주 4경기에서 12타수 안타, 타율 5할. 이원석은 “나도 이유는 모르겠다. 고향이니까?”라면서 KIA, 광주에서 강한 이유를 언급했다. 또 “현종이가 선배 하나 치라고 준 것 같다”며 웃었다.

이원석이 3학년 때 양현종을 1학년.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7타수 3안타(2홈런) 4타점으로 이원석이 앞서 있다. 삼성의 새로운 전력으로 떠오른 이성근도 광주 출신. 이순철 해설위원의 아들이기도 한 이성근은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 이성근은 25일 올 시즌 첫 광주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성근은 “경기 출장수가 많아지니까 더 차분하게 승부를 하게 되고, 투수들도 더 분석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짐들이 날 아쉬운 패배

‘K리그1’ 전용구장서 수원에 0-1
펠리페·이순민 등 공격 활로 못뚫어
엄원상, 새 구장 첫 유효슈팅 기록

아쉬움으로 끝난 광주FC의 첫 경기였다.

지난 26일 수원삼성과의 홈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마주한 광주 박진섭 감독의 표정은 어두웠다.

박 감독은 “전용경기장 첫 경기고 우리한테는 좋은 날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날이기도 해서 오늘 경기는 꼭 이기고 싶었다. 공격적으로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저서 팬분들과 다른 분들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

광주에는 많은 의미가 있던 날이었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축구전용구장에서 치르는 첫 경기. 선수들은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었다.

이날 선수들은 팬 공모와 투표로 선정된 ‘창단 10주년’ 기념 유니폼 차림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고 새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경기였던 만큼 승리에 대한 광주의 의지는 강했다. 또 개장경기 상대로 만난 수원이 승점 1점 차로 9위 광주를 추격하고 있었던 만큼 승리는 간절했다.

광주는 전반 9분 전용구장 첫 유효슈팅을 기록한 엄원상, ‘새로운 피’ 이순민, ‘에이스’ 펠리페 등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했지만 끝내 수원의 골대를 뚫지 못했다.

그리고 후반 5분 수원 박상혁에게 데뷔골을 내준 광주는 득점에 실패하면서 0-1패를 기록했다. 여기에 수비의 중심 아슬마토프가 두 개의 경고 카드를 받아 후반 49분 퇴장당하는 등 악재도 겹쳤다.

‘잔칫날’이었지만 박진섭 감독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다.

광주는 승점을 더하는 데 실패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는 8월 1일 ‘최하위’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승부를 위해 원정길에 오르게 됐다.

한편 이날 관중석에서는 각별한 마음으로 두 팀의 경기를 지켜본 인물이 있었다.



광주FC의 윌리엄스(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25일 광주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13라운드 홈경기에서 수원삼성 한석희의 저지를 뚫고 공을 쫓고 있다. (광주FC 제공)

2016년 주장을 맡았던 등 4시즌을 광주에서 뛰며 제2의 전성기를 보냈던 ‘프리카의 달인’ 이종민이 이날 수원 삼성의 스카우트로 광주전용구장을 찾았다.

이종민은 지난 4월 광주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역대 베스트 11’ 투표에서 팬들의 선택을 받으며 당당히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종민은 “오랜만에 왔는데 경기장이 좋은 것 같다. 여기서 경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펠리페 날랐을 것 같다(웃음)”며 전용구장 개장을 축하한 뒤 “팬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다. 멀리에서나마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자신의 또 다른 축구 무대를 펼쳐준 광주와 광주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투 했지만, 문제는 수비

류현진, 토론토 개막전 4%이닝 3실점... 동료들 불안한 수비 실점 빌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3)은 예상대로 개막전부터 불안한 내야 수비 문제로 시달렸다.

류현진은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3실점의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며 승패 없이 경기를 마쳤다.

류현진은 홈런 1개를 포함해 안타 4개를 내주고 시구역시 47나 범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류현진은 2회까지 삼자범퇴로 완벽한 모습을 보였으나, 동료들은 3회부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류현진은 첫 타자 윌리 아담스를 2루 땅볼로 유도했는데, 2루수 캐번 비지오가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

강습 타구는 비지오의 몸을 맞고 굴절돼 중견수 쪽으로 굴러갔다. 중견수 랜들 그리척은 공을 처리하려다 발을 헛디뎠어 실수를 했다. 그

사이 타자 주지는 2루에 안착했다.

4회에도 불안한 내야 수비가 류현진의 부담을 가중했다. 류현진은 1사 1루에서 마누엘 마르그트를 3루 땅볼로 유도했고, 5-4-3 병살타로 연결해 이닝을 종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3루수 트레비스 쇼의 송구 동작이 빠르지 못했고, 2루수 비지오의 1루 송구가 원바운드로 이뤄지면서 타자 주자를 잡지 못했다.

이닝을 끝내지 못한 류현진은 이후 적시타를 허용해 첫 실점했다. 토론토의 불안한 수비는 개막전부터 문제로 부각됐다. 지난 시즌 수비효율(DER·인플레이 타구 중 아웃으로 처리하는 비율) 0.687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20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류현진은 상대 타자들을 맞아 잡는 전형적인 ‘땅볼 유도형 투수’로, 구위보다는 제구력을 앞세워 범타를 유도한다. 이제 류현진은 아수들의 수비 도움 없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 /연합뉴스

형 vs 아우 국가대표 맞대결

축구협, 9월 A매치 기간 ‘A대표-U-23’ 두차례 친선경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 스포츠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한국 축구 팬들은 24년 만에 ‘형과 아우’ 국가대표들의 맞대결을 볼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국가대표팀과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3 이하(U-23) 대표팀이 9월 A매치 기간(8월 31일~9월 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두 차례 맞대결을 펼친다”고 밝혔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회는 “오는 10월 재개될 예정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대비해 9월 A매치

상대 팀을 모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며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여전한 상황이라 해외팀과 경기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대결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탓에 해외파는 소집하지 않기로 했으나 축구 팬들이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A대표팀과 U-23 팀 간 대결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벌써 관심이 뜨겁다.

한국 A대표팀과 U-23 대표팀이 맞붙는 것은 1996년 4월 21일 이후 무려 24년여 만이다. /연합뉴스